

■ 2026년도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현장발표지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예비예술인지원사업(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현장발표 지원)
- 회의일자 및 장소
 - (1차 분야별 서류심의) 2025년12월11일~19일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2
 - (2차 분야 통합 인터뷰 심의) 2026년01월09일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해성, 문선우, 민소윤, 오예민, 윤제원, 정범철, 정세라

작품 발표 경력이 없는 예비예술인을 발굴해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창의적 역량을 갖춘 신진 예술가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예술 단체의 예비예술인 현장 발표지원 사업’에는 다원예술, 무용,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음악, 전통 등의 분야에서 총 71건이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척박한 창작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젊은 예술인을 지원하려고 이 사업에 신청해 주신 단체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단체의 개성과 열정, 고뇌가 담긴 참신한 기획이 많아 반가웠고, 나아가 한국 문화예술의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서류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지원서에 기재된 예술 단체의 활동 경력, 참여 멘토와 강사들의 전문성, 컨소시엄 단체와의 역할 분담, 이 사업의 목표, 실행 가능성, 차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산을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업 종료 후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후속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들은 올해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고 있는지도 여러 각도에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안배를 고려해 비수도권 단체, 인구감소지역 단체에는 가점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1차 서류 심의를 거쳐 총 25개 단체를 2차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단체의 대표자들과 심의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하며 지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단체 관계자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2차 심의 과정에서는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맞게 공정하게 예술인을 선발하고, 작품을 발표할 때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예술을 향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예산 활용 등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총 19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좋은 기획이 많았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모두 선정할 수 없었습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그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이 사업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는 신인 예술가는 개성 있는 작품을 창작하는 유능한 예술가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하는 단체들도 사업을 수행하며 자생력을 키워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들도 충실하게 모니터링을 하며 이 사업이 앞으로 예비예술인, 단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일동